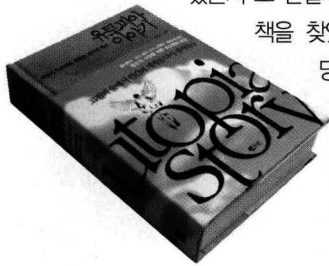


세상이 두려워한 ‘위험한 생각’의 역사

플라톤의 《국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조지 오웰의 《1984년》. 지금이야 고전의 반열에 올라선 책들이지만, 이 책들이 나왔던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평단은 물론 대중의 환영을 그리 많이 받지 못한 작품들이다. 이유는 세상이 두려워한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 토머스 모어, 프랜시스 베이컨 등 9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과 문필가들이 어떤 미래를 기

했는지 또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당대의 문제들이 ‘지금 여기’의 문제와 어떻게 잇닿아 있는지 조목조목 정리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탐사 저널리즘

이제까지 한국 언론의 주류는 발표 저널리즘이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탐사보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탐사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을 새롭게 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마지막 달동네 난곡, 한국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낸 황우석 사태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탐사 언론인 10인이 추적하고 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보도 방식인 탐사보도가 국내 언론계에 정착된 것은 불과 2년 남짓하지만 그 성과물들을 주목할 만하다. 단발성 보도와 받아쓰기 위주의 보도로 인해 점차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 언론이 사회의 비리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탐사보도, 그리고 이 책은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글_장동석 기자



부모로 산다는 것의 참된 의미

어버이날을 며칠 앞두고 오십견을 겪은 딸의 귤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팔손을 앞둔 노모가 새벽 첫차를 타고 상경했다. 노모는 현금 1백만 원을 딸에게 몰래 찔러주며 “아무도 주지 말고 너 먹고 싶은 거 사먹고, 귤병 낫는데 쓰라”며 신신당부를 한다. 그리고 병원에도 찾아가 의사에게 “우리 딸 꼭 귤병 낫게 해 달라”고 조르기까지.

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다. 《부모로 산다는 것》을 읽으면서 ‘부모로 산다는 게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절감했다. 아직 부모가 되어 보지 못한 처지에서 어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 어쩌면 부모로 산다는 것은 딸의 귤병이 열린 낫기를 기원하며 다시 시골로 돌아간 노모의 뒷모습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뒷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저자가 서두에 고백한 글에 공감할 것이다. “16년간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왔고, ‘아빠’라는 말을 무심히 편하게만 듣고 살아왔지만,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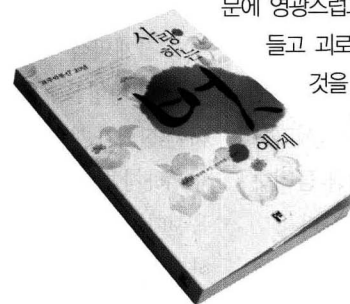
스무 해를 세상과 소통한 표주박 통신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그동안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를 몽땅 잃어버려 몇날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고이 간직한다고 상자에 초등학교 때부터 쓴 일기장과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들, 주고받은 쪽지까지 잘 넣어둔 것이 이삿짐을 옮기면서 빠뜨린 모양이었다. 이제는 전자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편지를 보관하고 옮기는 불편함은 없어졌지만 빨간 우체통이 가져다주는 끈끈한 추억은 몇 옛날이야기 같다.

스무 해 동안 변함없이 편지를 보낸 김조년 교수의 ‘표주박 통신’이 한 권의 편지로 엮여졌다. 이 안에는 함석헌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도 원본과 함께 게재돼 있다.

김조년 교수는 발간에 부쳐 “편지는 나에게 어떤 운명인지도 모른다. 편지 때문에 문에 영광스럽고 기쁨 때도 많았지만 편지 때문에 힘 들고 괴로웠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도 편지 쓰는 것을 그만 둘 수가 없다. 편지는 내 맘의 표현이요, 내 사자요, 내 몸이다. 한없이 외로워서 그것을 내던진다”라고 편지를 띄우는 심정을 적었다. **★**

글_정윤희 기자



- 《유토피아 이야기》 이인식 지음 | 갈리온 | 516쪽 | 값 25,000원
- 《세상을 깊게 보는 눈》 한국탐사언론인회 지음 | 황금부엉이 | 400쪽 | 값 12,800원
- 《부모로 산다는 것》 오동명 지음 | 두리미디어 | 254쪽 | 값 9,800원
- 《사랑하는 벗에게》 김조년 지음 | 동연 | 307쪽 | 값 12,000원

강한 의지로 인생의 격랑 견뎌낸 여인들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8명의 여인들을 인터뷰했다. 단순히 한 여인의 지난한 과거사가 아닌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했던 현대사의 질곡이 절절하게 와 닿는다. 하지만 8명 여인들의 남다른 면면을 살피다 보면 어느새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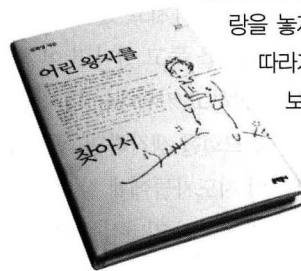


들이 세상을 향해 드러낸 용기와 인내, 생에 대한 송고함과 강한 의지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어찌 이런 인생을 견뎠는지...; 마주하고 있는 텍스트 만으로도 때로 버겁고 놀라 감동한다. 생생한 육성을 살려낸 글맛도 좋다.

혼란과 환멸의 뒷에 걸린 짧은 생애의 자전적 영상

불문학자 김화영 교수가 쓴 《어린 왕자》 해설서이다. 김 교수가 최근 갈리마르 판 《어린 왕자》를 번역하면서 역자 후기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책 한 권 분량의 해설서가 나오게 된 것

책에는 출간된 지 60년이 넘도록 여전히 늙지 않는 《어린 왕자》의 탄생 비화를 비롯해, 생텍쥐페리가 그린 '어린 왕자'의 초안들, 《어린 왕자》의 숨겨진 히로인 작가의 아내 콘수엘로에 얽힌 이야기 등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평생 동안 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다 큰 어른 생텍쥐페리의 흔적을 따라가노라면 단순하고 순진한 한 편의 동화로 보이는 《어린 왕자》가 "감정적인 혼란과 환멸의 뒷에 걸린 한 짧은 생애의 자전적 영상을 비춰주는 놀라운 감광판"이라는 저자의 말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최초로 소개된 알파벳에서부터 근대 영어 교과서까지

점점 거세지는 영어 스트레스, 언어소통의 수단이 아닌,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회생활에서는 '생존' 수단이 되어버린 영어가 한국에 어떤 경로로 유입되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책이다. 제목에서처럼 '개화기' 영어 교육 풍경을 엿볼 수 있다. 한일합병 전후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던 풍경부터 현재



에 이르기까지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사진자료를 첨부해 영어교육사적으로도 접근했다. 30여 년 전 한 잡지에 연재됐던 글을 되살리고 보강해 편찬했다. **★**

글_송보경 기자

근대의 청춘남녀가 처음으로 경험한 연애

심순애는 이수일을 배반하고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에 넘어갔다. 모두가 아는 사실은 여기까지.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얘기는 그 이후부터인데...

《장한몽》은 식민지 시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번안소설이다. '번역'이 아닌 '번안'이기 때문에 당대의 한국적 현실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었다. '번안소설'의 작가들이 한국어의 형질과 감각을 살리기 위해 애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책의 편자는 1910년대 유행했던 번안소설이 신소설과 근대소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고찰에 따라 번안소설의 대명사인 《장한몽》을 복원했다. 근대의 청춘남녀들은 바로 이 소설을 통해 처음으로 근대적 연애를 경험했다.



오늘날의 연애 소설이나 드라마와 별 다를 것 없는 즐거이러서일까. 두꺼운 책이 낯선 느낌도 없이 술술 넘어간다. 또한 상세한 낱말 풀이가 각장마다 덧붙여 있어 1910년대의 근대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다. **★**

글_이주연 기자

《여자전》 김서령 지음 | 푸른역사 | 272쪽 | 값 12,000원

《개화기의 영어 이야기》 김명배 지음 | 문은경 역음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출판부 | 307쪽 | 값 15,000원

《어린 왕자를 찾아서》 김화영 지음 | 문학동네 | 120쪽 | 값 7,500원

《장한몽》 조종환 번안 | 박진영 편 | 현실문화연구 | 576쪽 | 값 13,500원